

자료제공 : 2024. 1. 30.(화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

교통정책과장

이진구

2133-2210

사진없음

사진있음

쪽수: 2쪽

교통수요관리팀장

김종민

2133-2224

기후동행카드 누적 26만장 판매, 개시 후 첫 평일 29(월) 14만명 사용

- 1.29.(월) 기준 총 26만 3천장 판매, 모바일 9만 7천장, 실물 16만 6천장
- 평일인 29일 대중교통(지하철, 버스) 14만 2천명 사용, 따릉이 608명 이용
- 실물카드 인기로 품귀 현상, 초기 준비물량 20만장 중 약 3만장 남아...
- 서울시 긴급 15만장 추가 생산 중, 2.7.(수)부터 추가 물량 순차적 공급

-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1.29.(월)까지 누적 26만 3천장이 판매되었다.
 - 서울시는 지난 1.23.(화) 기후동행카드 판매가 시작된 이후로 ▲ 모바일 97,009장 ▲ 실물카드 166,307장이 판매되었다고 밝혔다.
 - 최다 판매역사는 ▲선릉역, ▲홍대입구역, ▲신림역, ▲까치산역, ▲삼성역 순이다.
- 기후동행카드 사업이 개시된 이후 첫 평일인 1.29.(월)에는 약 14만 2천명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서 버스와 지하철, 따릉이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.
 - 기후동행카드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한 건수는 총 47만건으로, ▲지하철 22만건, ▲버스 25만건을 각각 이용하였다.

- 기후동행카드로 최다 이용한 지하철 역사는 ▲강남역, ▲구로디지털단지역, ▲신림역 순이며, 버스는 ▲160번, ▲143번, ▲130번 버스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.
 - 이날까지 따릉이를 등록한 사람은 3,167명(누적)으로 29일 하루에만 608명이 기후동행카드로 따릉이를 이용하였다.
- 시는 당초 실물카드 20만장(예비 10만장 포함)을 준비하였으나, 예상보다 실물카드의 큰 인기로 빠르게 준비된 물량이 소진되어 추가 15만장 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며, 오는 2.7(수)부터 순차적으로 추가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.
- 시는 매일 저녁 실물카드 잔여 물량을 공급하고 있으나 오전 중에 준비된 물량이 매진되는 경우가 많아 역사 고객안전실이나 편의점에 사전 확인을 하고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.
- 시는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소지자의 경우 ‘모바일티머니’ 앱에서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무료로 수량제한 없이 발급·충전할 수 있으므로 실물카드 구매가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카드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.
- 모바일카드는 실물카드와 달리 카드구매 비용 없이 무료이며, 24시간 언제든지 충전할 수 있고, 환불도 앱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어 실물카드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.